***2019.01.15\_DB금융제안 공모전\_설명회***

*DB 김준기문화재단 -> 장학재단*

*대학생 기업경영 체험캠프 (경영시뮬레이션 프로그램) / 방학시즌, 2월말*

1) 공모전 상세요강 안내

금융관련 논문, 기획안을 통해 성장 기회를 주고자 함. 금융 전문가 육성 목표

금융사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 제안? -> 아닙니당, 관련분야 해당 연구주제면 뭐든 가능

1차 심사 발표->4월말 // 시상식 5.17 //

작성요령 & 심사기준 (실용성, 창의성, 논리성)

2) 수상자 경험담

8회 공모전 장려상 김형욱 : 부동산 키워드 선정 -> 지역주택 선물지수 개발 제안

관련 논문 읽기-> 개량화/시기상조 -> 현실성+참신-> 적용가능한 수식, 개량적 모델

프로그래밍 스킬 : 전년도 대상-> 엑셀로 충분히 구현

Ols 회귀분석 사용했음(학생 입장에서 쓰고, 심사하므로 굳이 어려운 개량 모델, ㄱ급화된 모델을 쓴다고 프리미엄이 붙는 것은 아니다.)

평가요령에 다라서 분석하기

수상자의 경우 부동산이기에) Kb 주택가격지수, 관련 선행논문 참고논문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

3) 심사기준 및 논문작성 설명, 심사위원 Q&A

db금융연구소 유용주 부사장

3배수 2차에서 거르고 8명이서 마지막 pt, 세차례에 걸친 심사

거창한 수준의 논문을 바라는 것은 아님 – 대학생들이 열심히 써보고 지도하고…

경쟁의 의미보다는 2달-3달정도 논문을 쓰는데 도움을 주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

제목을 보고 기존 수상작들🡪 내용은 사실 그렇지않음 : 대학생스러운 수준을 원함 (박사급 원하는 것 아님)

학사수준에서만 테스트하기에 그 이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실용성을 40%로 보고 창의성 30, 논리성 30% 인데, 실용성에서 크게 변별력 없다

20-30년동안 필드에서 경험한 심사위원입장에서 볼 때 실용성 있는 논문이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논리를 가장 많이 본다. -> 대학생수준에서 창의성은 쉽지 않다.

박사급의 논문이라면 기존에 없던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하지만 “대학생 수준의 창의성!”

Ex) 복잡한 수식들이 많이 선발된 것은 맞지만, 그 논문의 논리가 맞았던 것 일 뿐!

작년 예외적으로 고독사 보험이 모델 수상 아니었음(엑셀 w 만 봤음) -> 일본 고독사 보험 국내 적용방안

핫 이슈를 찾아내는 것이 창의성!

몇 년 전 최우수상 작품 : 창의성 ->선진국에 있지만 국내에 없는 것들을 찾아 적용하는 방안 fresh

엄청나게 뛰어난 이론을 바라는 것은 아님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성!!!!***

지나치게 프로페셔널하면 오히려 선발하지 않는다 -> 본인이 쓴게 아닐 수 있으므로

분량 상관없음, 오히려 너무 긴 것 선호하지 않음

1차에서 논문 세명의 심사위원이 봄

논문. 기획안 : 동일한 수준의 동일한 논리가 있다면 기획안을 선호함

논문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 -> 기획안 논리가 부족하기 떄문이다. (아이디어 아니다! )

수식의 논리, 주장하는 바에 대한 정확한 논리, 사례

주제 자유롭게-> 경제, 금융, 정책(지적재산권으로 모델 만든 것도 당선된 적 있음) 상관없음

상품 개발은 one of them

학생 수준에서 고객의 시각에서만 보는 경우가 있음-> 그 상품 만들 이유가 왜??!

상품을 만들때 에는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할 것

데이터: 학생이 찾을 수 있는 데이터 한정적이다.

찾을 수 없는 데이터의 경우 어쩔 수 없다.-> 대체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찾아서 한계가 있으니,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서 돌려보겠다 라고 말하면 됨! ::: ***한계를 말하는게 매우 중요!*** (그러한 데이터를 왜 썼는지, 적용할떄 어떻게 써야할지-> 실제 설문지를 돌려 가공한 경우도 있었음, 샘플링의 문제가 있지만 어쩔 수 없다 등, 구현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자신의 논문의 한계점을 확실히 말하는게 좋다-> 무엇이 정답인지 알고 있으나 구현하기 어려웠다는 것

***한페이지 써머리 제출하면 좋다(초록)***

기획안 보고서용 ppt : 발표용 써머리가 아닌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간 ppt

고객의 입장에서만 하지 말고 회사의 입장에서 -> 회사가 얻을 수 있는 효용, 편익, 정책당국 차원의 이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모델 구축시 구현한 알고리즘이나 데이터셋을 별첨? / 아니면 필요없는지? / 논문이나 기획안 장표에 포함시켜야하는지? 🡪 알고리즘 자체가 메인이 아니라면 뒤에 별첨하는 것이 맞고

새로운 분석기법활용 프로젝트가 존재하는지, csv 파일 제출해도 되는지 -> 잘모르게씀^^; 심사위원들이 개별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삼성의 미래전략실 같은 곳(사실 전문가는 아닌듯) 이기에 / 어쨌든, 뭐든 자유롭다. *데이터가 메인 프레임은 아니기에 별첨하면 될 듯*

출품작 인정 -> 자기표절 재가공 편하게 쓰세염 (프로그램 돌려는 보지만 갠춘)

이번에 딥러닝 전문가 한명 -> 이전에는 모델 전공한 사람들이 많았지 딥러닝 전문한 사람 한명도 엇었음;;(근데 왜 뽑았냐;;)

4) 개별 Q&A